

지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연구: OECD 회원국과의 비교분석*

박 명 호** · 오 완 근*** · 이 영 섭**** · 한 상 범*****

논문 초록 |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대분류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으로 구성되는 경제발전지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다. 개발된 지표를 이용한 OECD 회원국들과의 시계열(1995-2009) 및 횡단면 분석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표연구를 활용해 OECD 회원국 중심의 글로벌 트렌드와 국가별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OECD 회원국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지 고찰하였다.

핵심 주제어: 경제사회발전, 지표연구,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1

투고 일자: 2013. 4. 23. 심사 및 수정 일자: 2013. 7. 1. 게재 확정 일자: 2013. 8. 19.

*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한국경제·사회 선진화의 조건(Ⅲ): 경제사회 발전트렌드 분석: 지표 연구(201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저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지원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를 위해 조언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용석 교수님, 박찬열 연구원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본 연구의 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물론 논문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이다.

** 제1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mhpark@hufs.ac.kr

*** 교신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wanoh@hufs.ac.kr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e-mail: ysree@snu.ac.kr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sbhahn@kgu.ac.kr

I. 서 론

국내총생산(GDP)은 경제사회발전을 측정하는 척도로 현재에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GDP는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이는 경제활동을 재는 척도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웰빙의 척도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GDP를 사회발전의 척도로 사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여가, 소득분배, 환경 등 성장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GDP 개념의 한계에 대한 비판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비판은 삶의 질 및 환경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한편으로는 Easterlin(1974)의 지적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의 행복 수준은 GDP가 증가한 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70년대 일련의 석유파동 이후 화석연료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온실가스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GDP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1980년대에는 새로운 발전지표의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들이 다소 주춤해졌다.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제 문제가 각 국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GDP 성장 중심의 정책들이 주요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사회발전지표(social indicators) 개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고 행복 또는 질 높은 삶의 영위가 중요해지면서 특히 선진국에서 새로운 발전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경제성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생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1992년 UN의 리우정상회담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단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수준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시계열 및 횡단면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지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선 지표연구는 특정 목적의 달

성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해 준다. 또한 지표 연구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표 연구는 한 사회를 실증적 근거에 기초하여 수량화 시킨다는 점에서 측정의 정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연구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표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던 지표연구를 고찰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본 지표 체계의 구성 및 방법론을 논의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지표 내용 관련 OECD 추세 및 국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Ⅴ장에서는 OECD 회원국 대비 한국의 상대적 위상 분석과 더불어 정책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은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Ⅱ. 기존문헌 연구

1. 경제사회발전의 측정과 지표

그동안 다양하게 모색된 발전지표는 지표 구성방법을 기준으로 국민계정과 관계된 지표, 사회발전 종합 지표, 주관적 평가지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민계정과 관계된 지표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 제시한 GDP 이외의 지표와 GDP를 수정해 사회발전지표를 구성한 GDP 수정지표로 구분된다. GDP 이외의 지표는 GD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수출입가격변화에 따른 무역 손익과 실질 대외순수취 요소소득을 합한 GNI, 사회구성원의 현재 혹은 미래의 소비 가능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고자 자본재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NDP(Net Domestic Product), 개인차원의 소비를 측정해 개인의 복지를 반영하고자 가계소득에 순이전소득을 더한 가계가처분소득이 있다.

GDP 수정지표는 다양한 경제사회발전 현상을 반영해 GDP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부분 GDP 혹은 SNA의 GDP 이외의 지표를 기초로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만들어졌다. 이를 최초로 시도한 것이 경제후생지수(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이다. MEW는 일종의 복지 지표로서 GDP가 갖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Nordhaus and Tobin(1973)이 제안한 개념이

다. Daly and Cobb(1989)이 제안한 지속가능 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e, ISEW)는 MEW를 토대로 자연생태계와 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둘째, 국민계정을 벗어나 보다 폭넓게 사회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은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지표세트(Dashboards of Indicators)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세트는 경제·사회적 상태를 하나의 단일지표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여러 지표들을 세트로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생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66년 UN에서 삶의 질에 대해 여러 하위 분야별로 생활지표를 개발한 것이 가장 체계적인 출발점이었으며, 이후 OECD로 확대되어 회원국의 사회발전에 대한 지표화가 추구되었다. 다음으로, 발전, 복지, 환경지속가능성, 사회안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지표들을 하나로 집계하여 복합지표(composite index)를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복합지표로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지구행복지수(Happy Planet Index, HPI)가 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사회 현상을 포괄하기보다 동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의 복지와 지속가능성 간의 상충관계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발전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세계은행의 참저축(Genuine Savings, GS), 환경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 Wackernagel and Rees, 1997)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005년부터 UNECE, OECD, Eurostat이 공동으로 이론적인 토대를 갖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셋째, 경제사회발전지표를 구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서베이를 통해 개인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감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주관적 평가지표는 사회구성원 각자가 삶의 질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고 주관적인 삶의 질이 측정가능하다는 두 가지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주관적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Easterlin(1974)이다. 이스털린 패러독스(Easterlin Paradox)는 1946년에서 1970년 사이 미국 1인당 소득은 증가했으나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의 행복도는 오히려 감소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해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를 혼합해 합성지표를 구성하려는 노력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Veenhoven(1990)은 객관적인 기대수명과 주관적인 생활만족도를 합해 행복기대수명(Happy

Life Expectancy, HLE) 지표를 개발했고, Diener(1994)는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들을 고루 활용해 개량삶의질지수(Advanced Quality of Life Index, AQLI)를 제안했다. 일본의 신국민생활지표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발전 종합지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경제사회발전지표의 주요 사례

위에서 소개한 경제사회발전지표의 여러 사례 중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인용되는 다음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EW와 ISEW다. MEW는 GDP가 갖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Nordhaus and Tobin(1973)이 제안한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에 걸쳐 지속가능한 소비 및 복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이는 GDP가 나타내는 물질 가치 외에도 육아 등 효용을 유발하는 가계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여 가산한다. 또한 내구재의 사용에서 얻는 서비스 가치를 포함하고, 교육 등에 대한 투자에서 얻는 서비스는 소득증가분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반면 효용 창출행위에 필요한 생산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경제행위(치안, 국방, 공중보건 등), 자본의 감가상각, 경제성장에 필요한 신규투자, 도시의 비효용(disamenities of urban life; 소음, 공해 등)은 차감한다. ISEW는 Daly and Cobb(1989)이 고안한 것으로, MEW를 기초로 환경이슈와 자연생태계와 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둘째, GPI는 1996년부터 캐나다에서 개발된 지표로서 기존의 경제 위주의 발전 개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Henderson, 1991). 이 지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며 기존의 삶의 질 척도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GPI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GDP의 대체물이 아닌 보완적인 것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대간, 세대내, 지리적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활동의 양 뿐만 아니라 삶의 질까지 포괄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기존의 삶의 질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정책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 더해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 포함한 통합계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개념을 환경(자연)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여 이들을 화폐가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GPI의 기본 원칙은 제한된 자원과 다음 세대의

변영과 복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 있다. 그리고 모든 지표는 규범적이고 내재된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결과(outcomes)로서의 웰빙뿐만 아니라 결정요인(determinants)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HDI는 1990년 이후 UNDP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서 경제성장과 인간발전이 실질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 가지 세부지표에 기초해 산정된다.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반영하기 위한 기대수명,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가를 반영하기 위한 성인문자독해율(가중치 2/3)과 초중고대학교 등록률(가중치 1/3)의 가중합, 생계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반영하기 위한 1인당 실질GDP(구매력기준)가 그것이다.

넷째,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발전지표 개발 노력은 2008년 스티글리츠 교수를 위원장으로 4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경제적 성취와 사회발전 측정 위원회’(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P, 2009)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는 GDP에 대한 수정과 확장,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 삶의 질의 제고 문제를 다룬다.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사회발전지표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고, 사회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을 경제,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3분야로 나누어 제공했으며, 향후 사회발전지표를 만드는 작업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를 포괄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GDP를 능가하는 대안 지표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Ⅲ. 지표체계의 구성 및 데이터

1. 지표체계의 구성

한 국가의 비전은 명확한 목표와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경험적 측정 지표로 구체화되어 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성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국가발전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세련된 시민의식, 그리고 신뢰와 합의에 기반한 정치시스템,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 등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차후 세대들을 위한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더라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이한 집단, 상이한 항목, 상이한 가치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선순환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숙한 발전모델은 성장동력과 사회통합 간의 선순환과 상생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경문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활동 간의 생태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발전지표는 한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면서 동시에 양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의 3개 대분류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¹⁾ 대분류의 첫째 영역인 성장동력은 안정적 성장과 산업경쟁력이라는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성장동력의 첫째 중분류인 안정적 성장은 소득, 거시 안정성, 금융발전 및 경제개방성 등 4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졌다.²⁾ 성장동력의 또 다른 중분류 구분요소인 산업경쟁력은 정보화, 기술혁신,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대분류 영역인 사회통합은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관용성 및 정부의 신뢰성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사회통합의 중분류 영역인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은 자유, 안전, 역능, 복지/분배, 저출산/고령화 등 5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졌다. 사회통합의 또 다른 중분류 영역인 관용사회와 신뢰 받는 정부는 사회적 자본, 관용 사회 및 정부 역량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대분류 영역인 환경은 환경효율과 대응노력 등 2개의 중분류로 구분된다. 그 중 환경효율은 자원효율성과 환경위해성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다른 중분류 영역인 대응노력은 재생역량과 국제기여로 각각 구성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표체계는 한편으로는 한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적 검증과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우선 지표 내용 중 한국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장동력 중에서는 금융발전, 개방성을 포함하여 한국의 취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다루고자 하였다. 산업경쟁력에서는 정보화와 기술혁신 중 특허를 포함시켰다. 사회통합 분야에서 역능, 저출산/고령화, 정부역량을 포함시킨 점 역시 한국의 특성을 포

1) 본 연구의 지표체계 구성의 배경 및 이론적 설명은 Park et al. (2010), Ch. 2를 참조할 것.

2) 소분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을 참조하고 데이터 특성 및 출처는 아래의 소절을 참조.

〈표 1〉 지표구성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내용	세부내용
성장동력	안정적 성장	소득	1인당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거시 안정성	물가	인플레이션
			재정	정부부채비율
		금융발전	금융규모	(은행자산규모+주식시가총액+민간 및 정부발행 채권시가총액)/GDP
			금융활동성	(대민간여신+주식거래규모)/GDP
		경제개방성	무역	무역규모비율
			외국인투자	FDI (inflow) 비율
	산업경쟁력	정보화	인터넷	인터넷 사용자 비율
			통신	이동통신가입자 비율
			컴퓨터	PC 보급률
		기술혁신	R&D	연구개발총자사 비율
			특허	미국특허등록건수
		인적자본	노동의 양	남자고용률
			노동의 질	여자고용률
				노동생산성
사회통합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자유	경제적자유	경제자유지수
			사회·정치분야	언론자유지수
		안전	경제안전	실업률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사회안전	노령고용률
				도로사망률
				건강지출비율
		역능	경제적 역능	자살률
				수감자수(10만명당)
		복지/분배	정치적 역능	노동참가율
			사회지출	정치체제 민주성
		저출산/고령화	분배	복지지출
			저출산	지니계수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사회적 자본	고령화	출산율
			신뢰	고령화 인구 비율
				일반신뢰
				기관신뢰
		관용 사회	시민참여	시민참여지수
			장애인배려	장애인노동자 관련법률 수
		정부 역량	관용성	타인에 대한 관용
			외국인 수용성	외국인 비율
환경	환경효율	자원효율성	효과성	정부효과성지수
			범치	범치지수
		환경위해성	부패	부패지수
			국제 사회 기여	ODA
	대응노력	재생역량	에너지효율성	1차 에너지 소비 / GDP
			물소비	물소비 / GDP
		국제기여	CO2	CO2 배출 / GDP
			미세먼지	PM10 농도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폐기물	쓰레기 배출 / GDP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 / GDP
환경	환경위해성	재생역량	상수도보급	상수도 보급률
			친환경기업	ISO 14001 인증 기업체 수
		국제기여	녹색 ODA	녹색부문 ODA 금액 / GDP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주요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함하고 있다. 환경 분야를 효율과 대응능력으로 구분한 점 역시 한국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녹색ODA를 포함하는 국제기여 역시 한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지표체계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 및 군집분석(clustering analysis) 등을 통해 지표 영역 간 상호의존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복지/분배 변수는 다른 지표내용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 포함시켰다.

한편, 지수를 작성함에 있어 동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소분류 지수를 만들때 해당 지표가 n개 있다면 각 지표에 $(1/n)$ 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소(중) 분류 지수를 이용하여 중(대) 분류 지수를 작성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표체계를 구성하였다. 기존 지표연구 중 한 나라의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지표 작업을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Ministerial Council (2010) 보고서는 스티글리츠 위원회가 제안한 지표 체계를 토대로 경제성, 삶의 질 및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도하였지만 데이터의 가공 및 분석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낮은 수준이었다. 이 밖에도 OECD (2013)에서는 OECD국가 34개국 및 비OECD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경제 및 사회 분야의 11개 주제에 대해 24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삶의 질을 측정한 Better Life Index (BLI)를 만들었다. 그러나 BLI는 단지 2013년 한 해에 대한 지표만 제공하고 있으며, 포함하고 있는 소분류 지표들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때 실제로 본 연구의 경제사회발전지표(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dicator, 이하 ESDI)가 일국의 경제사회발전단계를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지표체계라고 할 수 있다.

2. 데이터 특성 및 출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는 OECD 31개 회원국에 대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15년 기간의 패널통계이다. OECD 31개 회원국은 21세기를 선도하는 국가들로 GDP 규모가 2009년 기준 전 세계의 70.2%를 차지하고 있어 충분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계는 크게 세 가지 형태, 즉 시간 추세가 있는 통계, 서베이 통계, 지수 형태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시기의 통계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서베이 통계의 경우는 계단함수(step function)³⁾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그리고 시간추세가 있거나 지수 형태의 수준변수는 선형함수(linear function)⁴⁾를 적용하되 비율변수는 내삽의 경우는 선형함수, 외삽의 경우는 계단함수를 적용하였다. 이때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이 비율변수라 하더라도 뚜렷한 시계열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선형함수를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원자료가 수준 변수이나 인구 혹은 GDP 대비 비율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선형함수로 추정한 후 비율변수로 변환하였다. 그리고 세부지표 관련 데이터 값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 국가는 분석 자체에서 제외되었다.⁵⁾ 지표 체계에 상응하는 데이터 출처는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세부지표출처

세부내용	자료출처
1인당 국민소득	World Bank, WDI
인플레이션	
정부부채비중	OECD stats
(대민간여신/GDP) + (자본시장시가총액/GDP) (대민간여신/GDP) * (주식총거래대금/GDP)	World Bank, Financial Structure Dataset
무역규모비율	World Bank, WDI
FDI (inflow) 비율	
인터넷 사용자	
이동통신가입자	
PC 보급률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연구개발종사자	UNESCO
미국특허 등록건수	USPTO
남자 고용률	World Bank, WDI
여자 고용률	
노동생산성	
교육년수	
교육지출비율	UNESCO, World Bank, WDI
경제자유지수	Heritage Foundation
언론자유	Freedomhouse
실업률	World Bank, WDI

3) 유효한 가장 최근 관측치로 결측값을 대체함.
4) 결측치가 존재하는 변수의 국가별 1995-2010년간 유효한 관측치를 사용하여 시간 변화에 따른 선형회귀분석 결과의 추정치(fitted value)로 결측값을 대체함.
5) 사회통합 분야의 지수는 칠레를 제외한 OECD 회원국 30국을 대상으로 만들었음.

세부내용	자료출처
노령자에 대한 사회지출	OECD stats
노령고용률	ILO
도로사망률	OECD Factbook, UNECE
건강지출비율	WHO NHA data
자살률	OECD Health Data, WHO,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
수감자수	OECD Factbook
노동참가율	World Bank, WDI
정치체제 민주성	Freedomhouse
복지지출	OECD Factbook
지니계수	UNU-WIDER
출산율	World Bank, WDI
고령화 인구 비율	
일반신뢰	World Values Survey
기관신뢰	
시민참여지수	
장애인노동자 관련 법률 수	ILO
타인에 대한 관용	World Values Survey
외국인 비율	OECD Factbook, World Bank, WDI
정부효과성지수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법치지수	The World Justice Forum
부패지수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ODA	OECD stats
1차에너지소비/GDP	EIA
물소비/GDP	OECD Factbook, FAO
CO2배출량/GDP	World Bank, WDI
PM10농도	World Bank, WDI
쓰레기배출량/GDP	OECD stats, UNstats Environment Statistics
재생에너지 전기생산/GDP	EIA
상수보급률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Database
ISO 14001 인증 기업수	The ISO Survey of Certifications
녹색분야 ODA/GDP	OECD stats, ODA by Sector
협약 가입률	Columbia University,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IV. OECD의 경제사회발전 추세 및 국가별 특성 분석

1. 영역별 추세 분석

OECD국가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1.6%에서 2009년

70.2%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OECD국가들이 여전히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군이므로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사회발전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OECD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대분류인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 부문과 추가적으로 1인당 GDP 등에 대한 각각의 평균과 변화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모든 지수는 각국의 자료를 Osberg and Sharpe (2005)의 표준화방식 (Linear Scaling Method; LSM)을 이용하여 연도별 평균을 구하였다.

$$\text{LSM 표준화 지수} = (\text{Value} - \text{Min}) / (\text{Max} - \text{Min})$$

$$\text{Max} = \text{global Max} + |\text{global Max} * 10\%|,$$

$$\text{Min} = \text{global Min} - |\text{global Min} * 10\%|$$

이러한 표준화는 각각의 수치를 [0, 1] 사이로 선형화 시키고 국가간 비교뿐만 아니라 일국내 변화도 비교 가능토록 한다.

그리고 각각의 지수에 대해 시기별로 1990년대(1995-2000), 2000년대(2000-2009), 그리고 전기간(1995-2009)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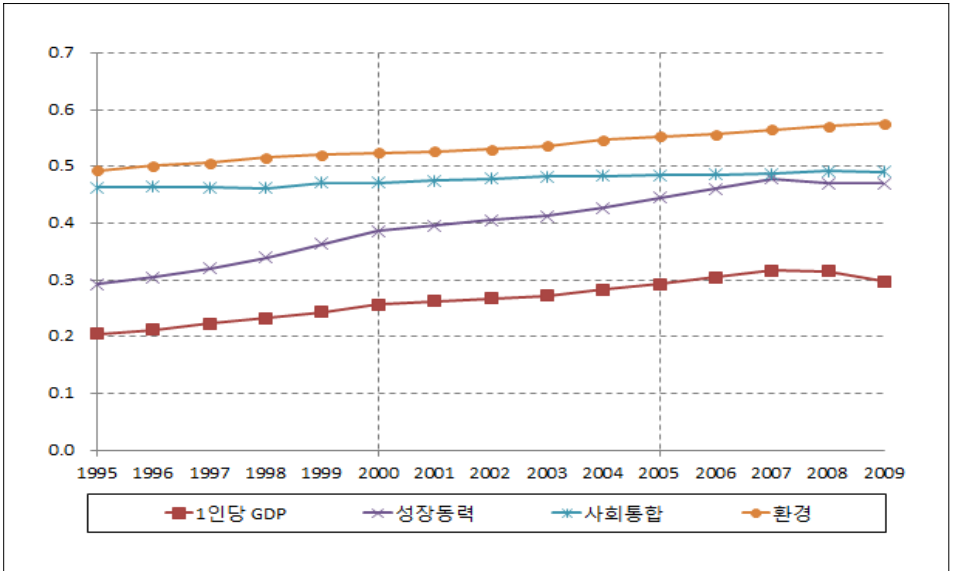
표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계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동력 영역이 전체 기간 중 연평균증가율(2.81%)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1인당 GDP 연평균증가율(2.60%)을 상회하였다. 둘째, 1인당 GDP 지수와 성장동력 지수는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되는 등 두 지수가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의 성장률이 훨씬 높으며, 두 지수간의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사회통합 영역은 크게 변화가 없는 가운데 성장동력, 1인당 GDP, 환경에 비해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0년대의 성장률이 2000년대의 성장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은 성장동력, 1인당 GDP, 환경과 대비되는 것이다. 넷째, 환경은 전기간 동안 완만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OECD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환경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에 비해 높은 2000년대의 증가율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OECD 및 각 OECD국가 차원에서 환경보호

를 위해 노력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OECD 대분류별 평균 및 변화를 추이

구분	평균값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9	95-00	00-09	95-09
성장동력	0.29	0.39	0.44	0.47	5.57	2.81
사회통합	0.46	0.47	0.48	0.49	0.36	0.52
환경	0.49	0.52	0.55	0.58	1.26	1.03
1인당 GDP 지수	0.21	0.26	0.29	0.30	4.55	2.60

〈그림 1〉 OECD 평균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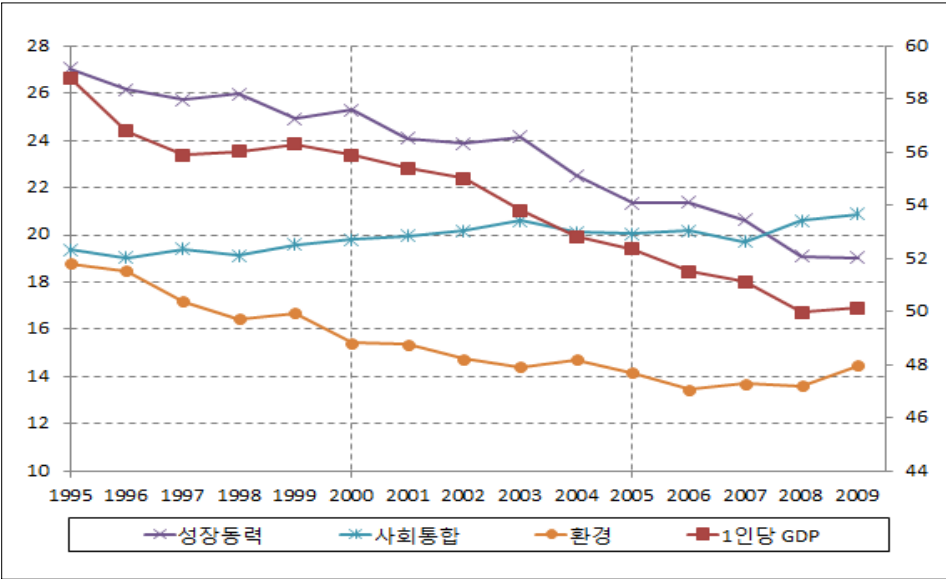


2. 변동계수 분석

〈그림 2〉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변동계수란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서 어떤 변수의 흩어짐의 정도를 나타내며, 측정단위가 다르거나 규모의 크기가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흔히 사용되는 표준편차는 확률변수의 흩어짐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반면에 변동계수는 변수의 측정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unit free) 장점을 지니고 있어 많

이 이용되고 있다. 변동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해당 지수에 대한 국가들 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전반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변동계수 추이



주: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은 왼쪽 축, 1인당 GDP는 오른쪽 축.

변동계수 추이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성장동력의 변동계수는 1995년부터 1인당 GDP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다 2009년에 상승하였다. 1인당 GDP의 변동계수가 감소한 것은 OECD 회원국간 경제의 통합화와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1인당 GDP 격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2009년에 상승한 것은 아마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판단되며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OECD 회원국간 격차가 벌어졌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장동력은 1인당 GDP만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소폭 감소한 점이 1인당 GDP와 상이한 점이다. 따라서 성장동력 면에서 OECD 회원국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환경은 1인당 GDP와 성장동력에 비해 완만하지만 2008년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간 환경격차가 해소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교토의정서 합의 이후 지구온난화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인식 공유와 적극적인 국가 간 공조 노력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에 환경의 변동계수가 상승한 것은 1인당 GDP와 유사한 패턴이다.

넷째, 사회통합의 변동계수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소폭 하락 후 2009년까지 다시 급격히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통합 변동계수의 상승 패턴은 성장동력 및 환경과는 다른 모습의 패턴인데, 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간 소득 격차가 축소되지만 국가간 사회통합의 격차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부 선도국가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배려와 관용이 확대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반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회통합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간 불평등 확대가 앞으로 개별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사회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국가별 특성 분석

다음으로 국가별로 지난 15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데이터 시작 시점(1995년)과 종료시점(2009년)의 상대적 순위와 1990년대 후반(1995-2000)과 2000년대 초반(2000-2005), 2000년대 후반(2005-2009), 전 기간(1995-2009)에 걸친 변화추세를 대분류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3개 영역에서의 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 개선정도가 가장 뛰어난 국가 등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4〉는 국가별 성장동력지수 수준 및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⁶⁾ 2009년 기준 성장동력지수 상위 3국은 룩셈부르크, 미국, 덴마크 순이다. 룩셈부르크는 안정적 성장 부문 1위, 안정적 성장 부문 중 소득, 거시안정성, 경제 개방성 항목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다.⁷⁾ 미국의 경우 산업경쟁력 부문 1위, 그 안에서 정보화, 기술혁신, 인적자본 세 항목 모두에서도 상위 등수를 차지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와 미국은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줄곧 상위권을 유지한 반면 덴마크는 순위가 1995년 10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는 3위로 대폭 상승한 것이 특징이다.

6) 대분류 사회통합 및 환경 영역별 지수 및 변화율 수준을 비교하는 표는 부록에 포함시켰다.

7) 논문 분량 상 중분류, 소분류별 국가별 수준 및 변화율 분석은 생략한다.

〈표 4〉 국가별 성장동력지수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순 위				지 수 값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verage	0.29	0.39	0.44	0.47	5.7	2.9	1.4	3.5
Australia	7	13	13	12	0.35	0.43	0.48	0.52	4.3	2.1	2.2	2.9
Austria	18	17	11	16	0.31	0.41	0.49	0.48	5.7	3.5	-0.2	3.2
Belgium	17	12	14	20	0.31	0.43	0.46	0.46	6.7	1.4	-0.1	2.8
Canada	6	11	12	14	0.35	0.43	0.48	0.50	4.3	2.0	1.1	2.6
Chile	26	27	29	28	0.21	0.27	0.31	0.35	4.7	3.1	3.4	3.8
Czech Republic	24	24	22	24	0.22	0.31	0.39	0.40	7.3	4.2	1.2	4.4
Denmark	10	6	4	3	0.34	0.48	0.54	0.56	7.0	2.6	0.8	3.6
Finland	14	4	6	10	0.33	0.48	0.52	0.52	7.9	1.8	-0.1	3.4
France	15	19	20	18	0.32	0.39	0.43	0.47	3.9	2.3	2.0	2.8
Germany	12	15	17	17	0.33	0.42	0.46	0.48	5.0	1.7	1.1	2.7
Greece	27	25	27	27	0.19	0.28	0.33	0.36	8.0	3.4	2.3	4.7
Hungary	28	28	26	26	0.16	0.24	0.35	0.37	8.6	7.3	1.3	6.0
Iceland	11	8	1	6	0.34	0.47	0.62	0.55	6.7	6.1	-3.4	3.5
Ireland	19	10	16	9	0.29	0.43	0.46	0.53	8.5	1.1	3.6	4.4
Italy	23	23	23	25	0.25	0.34	0.38	0.40	6.5	1.9	1.1	3.3
Japan	5	16	19	19	0.37	0.42	0.45	0.46	2.4	1.4	0.7	1.6
Korea	20	20	18	13	0.27	0.37	0.45	0.51	6.8	4.0	2.8	4.6
Luxembourg	1	2	2	1	0.43	0.54	0.61	0.66	4.5	2.5	2.1	3.1
Mexico	29	30	30	30	0.16	0.21	0.27	0.29	5.6	4.9	2.2	4.4
Netherlands	9	5	8	8	0.34	0.48	0.52	0.53	6.9	1.5	0.8	3.2
New Zealand	16	18	15	15	0.32	0.39	0.46	0.49	4.2	3.4	1.8	3.2
Norway	4	14	9	4	0.38	0.42	0.52	0.55	2.3	4.0	1.8	2.7
Poland	30	29	28	29	0.15	0.24	0.31	0.35	9.3	5.6	3.1	6.2
Portugal	22	22	24	22	0.25	0.35	0.37	0.42	6.5	1.6	2.7	3.6
Slovak Republic	25	26	25	23	0.21	0.27	0.36	0.41	4.6	6.0	3.4	4.8
Spain	21	21	21	21	0.25	0.36	0.41	0.45	7.1	2.8	2.2	4.1
Sweden	8	7	5	7	0.34	0.47	0.53	0.54	6.6	2.4	0.3	3.3
Switzerland	3	3	7	5	0.38	0.50	0.52	0.55	5.7	0.8	1.0	2.6
Turkey	31	31	31	31	0.14	0.15	0.23	0.27	2.3	8.7	3.8	5.0
United Kingdom	13	9	10	11	0.33	0.44	0.50	0.52	5.8	2.8	0.9	3.3
United States	2	1	3	2	0.43	0.55	0.57	0.63	5.2	0.6	2.2	2.7

다음으로 1995년에서 2009년까지 순위 향상 측면에서는 아일랜드가 1995년 19위에서 2009년 9위로 10계단 상승하였으며 그 다음을 덴마크, 한국이 잇고 있다. 전

기간 연평균증가율 기준으로는 폴란드(6%), 헝가리(5.7%), 터키(4.9%)의 순으로 높았다. 성장동력 지수 값이 낮은 나라일수록 1995-2009 기간 중 연평균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OECD내에 수렴현상(convergence)이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2009년 기준 사회통합지수 상위 3국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순서이다. 스웨덴은 사회통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부문 3위,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부문 1위로서 두 부문에서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 덴마크 또한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부문 2위,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부문 3위로서 두 부문에서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

순위 향상 상위국은 벨기에(1995년 17위→2005년 11위), 네덜란드(8위→3위)이며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이 각각 3계단 상승하였다. 전 기간 연평균증가율 상위 3국은 스웨덴 1.2%, 벨기에 1.1%, 스페인 1%의 순이다.

다른 한편으로 2009년 기준 환경지수 상위 3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순서이다. 환경지수는 환경효율과 대응노력으로 분류되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환경효율 부문 3위, 대응노력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두 부문에서 고르게 발전하고 있다. 1995년에서 2009년까지의 순위 향상 정도를 보면, 스페인이 19위에서 13위로 6계단 상승하였으며 이어 핀란드(12위→6위), 프랑스(14위→9위)가 뒤를 잇고 있다. 전 기간 연평균증가율 면에서는 폴란드(2.4%), 슬로바키아(2.3%), 터키(2.2%) 순으로 나타났다.

V.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

1.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변화속도

한국이 1996년 12월 12일 회원국으로 OECD에 가입한 이래 지난 15년간 한국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그 위상의 변화 속도는 어떠하였는지를 경제, 사회, 환경의 각 영역별 추이를 고찰함으로써 일정 부분 파악하여 본다. 이를 위해 한국의 경제, 사회, 환경의 지표별 추세를 살펴보고, OECD 국가 내에서의 이들 지표의 상대적 순위 및 순위의 개선 정도를 비교하여 본다.

우선 대분류 영역의 지표 값의 수준 및 변화 추세부터 살펴보자. 아래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성장동력은 그 지표의 평균값이 1990년대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전체 대상국가의 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성장동력 지수의 성장률은 1990년대 연평균 6.3%이었고, 2000년에는 연평균 3.39%를 기록하여, 지난 15년간 OECD 국가의 평균인 연평균 3.39% 보다 1.14%p 가량 높은 연평균 4.53% 성장의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표 5> 한국의 대분류 영역별 연평균 변화율

구분		평균값		연평균변화율	
		전체	한국	전체	한국
성장동력	1990년대	0.32	0.30	5.57	6.58
	2000년대	0.44	0.44	2.18	3.39
	전기간	0.40	0.39	3.39	4.53
사회통합	1990년대	0.46	0.40	0.36	-1.45
	2000년대	0.48	0.38	0.44	0.28
	전기간	0.48	0.39	0.41	-0.34
환경	1990년대	0.51	0.39	1.26	1.71
	2000년대	0.55	0.46	1.03	1.88
	전기간	0.53	0.44	1.11	1.82
1인당 GDP 지수	1990년대	0.22	0.12	4.55	6.17
	2000년대	0.29	0.20	1.62	5.25
	전기간	0.27	0.17	2.67	5.58

주: 평균값 및 변화율은 모두 정규화된 지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함.

사회통합 지수는 모든 기간에서 OECD국가의 평균 수준에 다소 못 미치는 성과를 나타냈다. 사회통합 지수의 성장률은 1990년대에는 연평균 -1.45%를 기록하여 오히려 다소 악화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에는 0.28%로 점차 개선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대까지도 한국은 사회통합을 수반하지 못한 채 성장동력의 확충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 성장동력과 사회통합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한국의 환경 지수 역시 모든 기간에서 OECD국가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

다. 그러나 환경지수 성장률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연평균 1.82%로 1.11%인 OECD국가의 평균보다 다소 높아 개선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분석 기간 중에 OECD국가 평균 성장률의 2배를 웃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OECD국가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국의 각 영역별 OECD 국가 순위

이어서 한국의 위상을 OECD 국가와의 순위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 각 세부영역별로 OECD 내에서의 한국이 차지하는 순위를 매기고, 한국이 각 세부 영역별로 상위(H), 중위(M), 하위(L) 중 어느 그룹⁸⁾에 속하는지를 <표 6>에 정리하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장동력 측면에서 한국은 1995년 20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해 2009년에는 13등을 기록하여 전체 대상국 중 중위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분야에서 한국의 순위는 지난 15년간 21위에서 24위로 하락하였다. 이는 사회통합 지수 산정에 포함된 30개 OECD 국가 중 순위로 중위에서 하위로 하락한 것이다.⁹⁾ 환경 분야의 한국 순위는 전체 31개 대상국가 중 24위에서 27위로 다소 하락하여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은 1990년 후반 이후 경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사회통합과 환경 측면에서는 경제 분야에 상응하는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개 영역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은 사회통합과 환경을 아우르는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대분류 이외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사회적 자본 및 저출산/고령화 분야의 순위가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들 분야는 2009년 현재 모두 중위권으로 하락한 반면, 금융발전 및 기술혁신 분야는 새롭게 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저한 성과는 기술혁신으로 2009년 OECD 국가 중 6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중분류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은 30개 대상국 중 1995년 21등에서 2009년 27등으로 더욱 순위가 하락하며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분

8) 그룹의 구분 기준은 각각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로 하였다.

9) 사회통합 지수는 칠레를 제외한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계산하였다.

아는 동 기간 중 순위가 21위를 고수하여 OECD국가 중에서 중위권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6〉 한국의 위상

구 분			순 위				상대수준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1995	2000	2005	2009	1990	2009
성장동력 (31)	안정적성장 (31)		20	20	18	13	M	M
		소득 (31)	24	24	23	22	L	M
		거시안정성 (31)	14	11	3	13	M	M
		금융발전 (31)	21	8	11	8	M	H
		경제개방성 (31)	23	24	22	14	L	M
	산업경쟁력 (31)		19	20	18	11	M	M
		정보화 (31)	21	14	16	13	M	M
		기술혁신 (31)	14	19	12	6	M	H
		인적자본 (31)	20	21	18	17	M	M
사회통합 (30)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30)		21	22	24	24	M	L
		자유 (31)	23	24	27	26	L	L
		안전 (31)	25	28	29	31	L	L
		역능 (31)	20	22	20	22	M	M
		복지/분배 (30)	28	28	27	27	L	L
		저출산/고령화 (31)	4	7	15	13	H	M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31)		21	22	21	21	M	M
		사회적 자본 (31)	8	11	12	13	H	M
		관용사회 (31)	25	30	30	31	L	L
		정부 (31)	27	26	23	23	L	L
환경 (31)	환경효율 (31)		24	28	26	27	L	L
			25	26	25	22	L	M
		자원효율성 (31)	20	23	21	23	M	L
		환경위해성 (31)	24	24	23	22	L	M
	대응노력 (31)		29	29	28	27	L	L
		재생역량 (31)	29	31	28	15	L	M
		국제기여 (31)	29	29	29	29	L	L

주1: H, L, M은 대상국가 중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 구간을 나타냄.

주2: () 안의 숫자는 지표별 대상국가의 수를 나타냄.

3.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수를 이용하여 정책변수에 양의 충격을 주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를 상대 순위 변화를 통해 알아보기 위하여 매우 단순한 형태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2009년 원시자료(raw data)에서 10%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가정할 때 순위 변화와 한국이 속한 상위, 중위, 하위 3개 그룹 중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이와는 달리 정책변수가 속한 소분류가 OECD 평균 수준 및 OECD 최상위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분석하였다.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대상 변수는 다음 7개 소분류의 11개 변수이다(〈표 7〉 참조). 본 연구의 경제사회발전지표 체계는 3개의 대분류별로 각각 2개씩 중분류가 있는데 정책변수는 이들 중분류별로 1개씩을 선정하였다. 단, 대분류 사회통합의 중분류인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에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복지/분배와 저출산/고령화 2개를 선정하였다.

〈표 7〉 분석대상 정책 변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석대상 정책변수
성장 동력	안정적성장	거시안정성	정부부채비중 ¹⁾
	산업경쟁력	기술혁신	연구개발총사자
사회 통합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복지/분배	복지지출
		저출산/고령화	출산율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정부 (모두)	정부효과성지수
			법치지수
			부패지수
			ODA
환경	환경효율	자원효율성	1차에너지소비/GDP ¹⁾
	대응노력	국제기여 (모두)	녹색ODA/GDP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주: 1) 낮을수록 좋은 변수는 10% 하락, 나머지는 10% 상승을 가정함.

〈표 8〉에는 해당 정책변수들의 2009년 수치를 정책적으로 10% 향상시켰을 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이, 정책변수 수준의 10% 향상은 한국의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그룹 수준에서는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이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10% 정도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대분류 중분류	소 분 류	실제 순위				시뮬레이 션 결과	상대수준	
		1995	2000	2005	2009		2009	시뮬레이 션 결과
	성장동력 (31)	20	20	18	13	13	M	M
	안정적성장 (31)	22	19	17	13	12	M	M
	소득 (31)	24	24	23	22	22	M	M
	거시안정성 (31)	14	11	3	13	12	M	M
	금융발전 (31)	21	8	11	8	8	H	H
	경제개방성 (31)	23	24	22	14	14	M	M
	산업경쟁력 (31)	19	20	18	11	11	M	M
	정보화 (31)	21	14	16	13	13	M	M
	기술혁신 (31)	14	19	12	6	5	H	H
	인적자본 (31)	20	21	18	17	17	M	M
	사회통합 (30)	21	22	24	24	24	L	L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30)	21	24	29	27	26	L	L
	자유 (31)	23	24	27	26	26	L	L
	안전 (31)	25	28	29	31	31	L	L
	역능 (31)	20	22	20	22	22	M	M
	복지/분배 (30)	28	28	27	27	27	L	L
	저출산/고령화 (31)	4	7	15	13	10	M	M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31)	21	22	21	21	21	M	M
	사회적 자본 (31)	8	11	12	13	13	M	M
	관용사회 (31)	25	30	30	31	31	L	L
	정부 (31)	27	26	23	23	23	L	L
	환경 (31)	24	28	26	27	25	L	L
	환경효율 (31)	25	26	25	22	20	M	M
	자원효율성 (31)	20	23	21	23	21	L	M
	환경위해성 (31)	24	24	23-	22	22	M	M
	대응노력 (31)	29	29	28	27	26	L	L
	재생역량 (31)	29	31	28	15	15	M	M
	국제기여 (31)	29	29	29	29	28	L	L

주: 음영은 정책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소분류 지수.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경제부문인 대분류 성장동력의 경우, 거시안정성의 제고 측면에서 정부부채 비중을 2009년 수준에서 10% 개선시키면, 소분류 거시안정성 순위가 13위에서 12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중분류 안정적성장의 순위면에서는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구개발종사자 비율을 10% 늘리면 소분류 기술혁신의 순위가 6위에서 5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분류 산업경쟁력의 순위는 11위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중분류 안정적성장의 순위와 경제 분야의 대분류인 성장동력의 순위¹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정적성장의 영향이 산업경쟁력 영향 보다 더 컸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시안정성과 기술혁신 모두 순위는 상승하였지만 이들 각각이 속했던 그룹은 각각 중위와 상위에서 변함이 없었다.

다음으로 사회통합 측면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을 10% 늘리면 소분류 복지/분배 순위가 27위로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출산율을 제고시키면 소분류 저출산/고령화 순위는 13위에서 10위로 3단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 기초하여 중분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의 순위는 27위에서 26위로 1단계 상승하였다. 반면에 정부에 속한 각각의 변수를 10% 향상시키는 경우 소분류 정부의 순위는 23위에서 변화가 없었다.

또한 소분류 정부가 속한 중분류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순위도 21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순위는 불변이었으나 중분류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순위가 1계단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대분류 사회통합 순위는 24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복지지출과 출산율을 10% 정도 개선하는 정도로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순위를 OECD 국가의 중위그룹으로 올리기 쉽지는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대분류 환경 측면의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자. 1차에너지소비/GDP인 에너지집약도를 2009년 대비 10% 개선하면 한국의 자원효율성 순위는 23위에서 21위로 2계단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다소비산업 중심이어서 단기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에너지다소비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에너지집약도를 개선하게 되면 상대적 순위가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송치웅·오완근, 2011). 자원효율성 순위 상승에

10) 여기서 대분류 순위는 해당 대분류에 속하는 모든 정책변수가 10% 변화한 후의 순위이다.

기초하여 중분류 환경효율은 한국 순위가 22위에서 20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녹색 ODA/GDP와 국제환경협약 가입률 모두를 2009년도 대비 10%씩 올리면 한국의 국제기여 순위는 29위에서 28위로 1계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소분류 재생역량의 개선 없이 국제기여만 향상시키는 경우 중분류 대응노력 순위는 단지 1단계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효율 순위가 개선되고 대응노력 순위도 증가하면서 대분류 환경 순위는 27위에서 25위로 2단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변수들과 관련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모두에서 한국이 속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다.

종합하면 성장동력에 속한 정책 변수들을 개선하면 해당 변수가 속한 소분류 한국 순위가 1계단씩 상승하고, 사회통합에 속한 정책 변수들을 개선하면 소분류 정부 부문과 복지/분배의 순위는 변화가 없었지만 저출산/고령화 순위는 3계단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면에서 정책 변수들을 제고시키면 자원효율성은 2계단, 국제기여는 1계단씩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순위 변화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책변수가 속한 소분류를 OECD 평균 수준 또는 OECD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가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거시안정성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0.88로 이미 0.84인 OECD 평균 이상이다. 이를 OECD 최고 수준인 0.97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9.7%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의 경우 역시 한국은 0.30으로 0.23인 OECD 평균보다 높으며, OECD 최고 수준인 0.69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83.4%의 상당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배의 경우는 한국의 수준이 0.44로 0.63인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65.5%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한 중분류에 속한 저출산/고령화의 경우는 한국이 0.40으로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유사하나, 0.70인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5.8%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영역은 한국이 0.35로 0.50인 OECD 평균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어, OECD 평균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35.2%의 개선이 필요하다. 자원효율성의 경우 한국은 0.76으로 OECD 평균인 0.80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5.4% 가량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기여는 0.19로 0.41인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 OECD 평균 수준 도달을 위해서는 76.1%의 상당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표 9〉 정책 변수별 수준 및 개선방향

중분류	소분류	한국수준 (2009)	OECD 평균수준 (2009)	OECD 최고수준 (2009)	필요 증가율 (%)	
					OECD 평균 달성	OECD 최고 달성
안정적성장	거시안정성	0.88	0.84	0.97	-5.3	9.7
산업경쟁력	기술혁신	0.30	0.23	0.69	-27.4	83.4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	복지/분배	0.44	0.63	0.84	36.3	65.5
	저출산/고령화	0.40	0.40	0.70	-1.7	55.8
관용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정부	0.35	0.50	0.82	35.2	84.9
환경효율	자원효율성	0.76	0.80	0.96	5.4	23.9
대응노력	국제기여	0.19	0.41	0.84	76.1	148.3

VI. 결 론

본 연구는 ESDI라는 지표체계를 활용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수준 파악을 목표로 하였다. ESDI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지표체계로 일국의 경제사회발전 단계를 진단하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 지표체계라 할 수 있다. ESDI는 시계열과 횡단면 분석을 모두 가능케 하므로 지표 연구를 통해 주요 변수의 세계적 추세 및 국가 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비교 대상 국가는 선진국 중심의 OECD 회원국이었다. 본 연구를 주요 변수의 트렌드와 한국의 위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분류 영역별 OECD 트렌드 및 국가별 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성장동력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반면, 사회통합의 성장률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성장동력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지수 성장률의 둔화 현상을 보였지만, 성장동력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성장동력 분야의 국가 간 격차가 축소되었다. 즉, 경제 영역에서는 OECD 회원국 간 수렴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통합 영역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지수 상위권 국가의 성장세가 지수 하위권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통합 지수의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분야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등 환경 선진국들에 비해 중국, 인도, 멕시코 등 환경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개선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국가 간 격차가 대폭으로 축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성장동력 및 환경분야에서는 글로벌 수렴 현상이 목격된 반면,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표 분석 결과 한국의 성장동력은 중위권 수준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동력의 성장세는 2000년대 이후 다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아직은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경제 분야와는 달리 사회통합 지표와 환경 지표는 모두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합 분야는 OECD 회원국 대비 수준도 낮고 개선 속도 역시 낮은 반면, 환경 분야는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개선 속도는 평균을 넘어서고 있어 그나마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사회통합과 환경 분야가 모두 경제분야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지표연구에서 최초로 정책 변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정책변수의 수준을 현재 대비 10% 개선시키는 경우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순위 변동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OECD 회원국 대비 한국의 발전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한국은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 참 고 문 헌

1. 박명호 · 오완근 · 이영섭 · 장용석 · 한상범, 『한국경제 · 사회 선진화의 조건(Ⅲ) : 경제사회 발전트렌드 분석: 지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Translated in English) Park, Myungho, Wankeun Oh, Yeongseop Rhee, Sang Buhm Hahn, and Yonk-Suk Jang, *Conditions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II): An Analysis of Development Trend and Indicators Research*,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11.
2. 송치웅 · 오완근, “에너지다소비산업에서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분석-에너지저소비산업과의 비교,”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2011.
(Translated in English) Song, ChiUng and Oh, Wankeun,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 Innovation in Energy Intensive Industry: Comparison to Less Energy Intensive Industry," 2011 Fal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Innovation Management & Economics, 2011.
3. Biderman, A.D., "Social Indicators and Goals," in Bauer R.A. 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A: MIT Press, 1966.
4.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CMEPP),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2009.
5. Daly, H.E. and J.B. Cobb, *For the Common Good: Redirecting the Economy toward Community, the Environment and a Sustainable Future*, Boston, MA: Beacon Press, 1989.
6. Diener, E.,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1, No. 2, 1994, pp.103-157.
7. Easterlin, Richard A.,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ed.,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r of Moses Abramovitz*, New York NY: Academic Press, 1974.
8. Henderson, Hazel, *Paradigms in Progress: Life Beyond Economics*, Indianapolis IN: Knowledge Systems Inc., 1991.
9. Ministerial Council, *Monitoring Economic Performance, Quality of Life and Sustainability*, Joint Report by German Council of Economic Experts/Conceil d'Analyse Economique, Paderborn, Germany, 2010.
10. Nordhaus, W.D., and J. Tobin, "Is Growth Obsolete?," in Milton Moss, ed., "The Measurement of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3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3, pp.509-532.
11. OECD, "OECD Better Life Index," 2013.
12. Osberg, L., and A. Sharpe, "How Should We Measure the 'Economic' Aspects of Well-being?,"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51, No. 2, 2005, pp.311-336.
13. Park, Myungho, Sang-Buhm Hahn, Yong-Suk Jang, Sang-In Kang, Wankeun Oh and Yeongseop Rhee, *Global Economic and Social Trends in OECD and G20 Countries*, Random House, 2010.
14. Veenhoven, R., "Happy Life-Expectancy: A Comprehensive Measure of Quality-of-Life in Na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9, 1996, pp.1-58.
15. Wackernagel, M. and W.E. Rees, "Perceptual and Structural Barriers to Investing in Natural Capital: Economics from an Ecological Footprint Perspective," *Ecological Economics*, Vol. 20, No. 1, 1997, pp.3-24.
16. <http://databank.worldbank.org>
17. <http://go.worldbank.org/X23UD9QUX0>
18. <http://laborsta.ilo.org>
19. <http://nodedge.com/CIAWFB>
20. <http://sedac.ciesin.columbia.edu/entri/treatySearch.jsp>

21. <http://stats.oecd.org>
221. <http://stats.uis.unesco.org>
23. <http://unstats.un.org/unsd/environment/Time%20series.htm>
24. <http://www.eia.gov/countries/data.cfm>
25. <http://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index.html>
26. <http://www.fao.org/nr/water/aquastat/main/index.stm>
27. <http://www.freedomhouse.org>
28. <http://www.heritage.org/Index>
29. http://www.ilo.org/dyn/natlex/natlex_browse.subject?p_lang=en
30. <http://www.irtad.net>
31. http://www.iso.org/iso/home/store/publications_and_e-products/management_standards_publications.htm
32. <http://www.oecd.org/publications/factbook/>
33.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34.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
35. <http://www.turkstat.gov.tr>
36. <http://www.ukpublicspending.co.uk>
37. http://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cst_allh.htm
38. <http://www.who.int/research/en/>
39. <http://www.wvsevsdb.com/wvs/WVSDData.jsp?Idioma=I>

〈부 록〉

〈부표 1〉 국가별 사회통합지수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순 위				지 수 값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verage	0.46	0.47	0.48	0.49	0.4	0.5	0.3	0.4
Australia	7	7	9	9	0.55	0.56	0.56	0.56	0.3	-0.1	0.0	0.1
Austria	14	16	15	14	0.49	0.49	0.51	0.52	-0.1	0.8	0.5	0.4
Belgium	17	14	12	11	0.47	0.49	0.53	0.55	0.9	1.5	0.8	1.1
Canada	12	12	11	13	0.52	0.52	0.53	0.53	0.2	0.4	0.0	0.2
Chile
Czech Republic	20	23	22	21	0.41	0.38	0.39	0.41	-1.7	0.8	1.0	0.0
Denmark	2	5	3	2	0.57	0.58	0.61	0.63	0.3	0.8	1.0	0.7
Finland	6	9	8	7	0.56	0.55	0.56	0.58	-0.2	0.4	0.9	0.3
France	16	18	17	16	0.48	0.47	0.50	0.51	-0.1	1.2	0.4	0.5
Germany	15	15	18	18	0.48	0.49	0.50	0.49	0.4	0.3	-0.5	0.1
Greece	27	25	27	25	0.35	0.37	0.37	0.37	0.7	0.2	0.2	0.4
Hungary	23	24	23	26	0.38	0.37	0.38	0.37	-0.2	0.5	-0.9	-0.1
Iceland	5	1	2	4	0.56	0.60	0.61	0.61	1.4	0.6	-0.1	0.7
Ireland	18	17	16	15	0.46	0.48	0.50	0.52	0.9	1.1	0.6	0.9
Italy	28	27	26	28	0.34	0.36	0.37	0.37	1.2	1.0	-0.7	0.6
Japan	19	20	20	20	0.43	0.42	0.43	0.43	-0.9	0.7	0.1	-0.1
Korea	21	22	24	24	0.41	0.38	0.38	0.39	-1.4	-0.1	0.7	-0.3
Luxembourg	11	8	7	8	0.53	0.56	0.57	0.57	1.0	0.6	-0.1	0.5
Mexico	29	29	29	29	0.31	0.33	0.32	0.30	1.0	-0.6	-1.8	-0.3
Netherlands	8	2	5	3	0.55	0.59	0.60	0.63	1.6	0.3	1.1	1.0
New Zealand	1	3	4	6	0.59	0.59	0.60	0.60	-0.1	0.3	0.0	0.1
Norway	4	6	6	5	0.57	0.58	0.59	0.61	0.3	0.4	0.6	0.5
Poland	25	26	28	27	0.37	0.36	0.35	0.37	-0.8	-0.3	1.2	-0.1
Portugal	24	21	21	22	0.38	0.41	0.41	0.41	1.7	-0.2	0.2	0.6
Slovak Republic	26	28	25	23	0.36	0.35	0.38	0.40	-0.9	1.9	1.6	0.8
Spain	22	19	19	19	0.39	0.45	0.45	0.45	3.2	-0.2	0.1	1.1
Sweden	3	4	1	1	0.57	0.59	0.63	0.67	0.4	1.3	1.8	1.2
Switzerland	9	11	10	12	0.54	0.53	0.55	0.54	-0.1	0.7	-0.7	0.0
Turkey	30	30	30	30	0.26	0.28	0.29	0.29	1.0	0.8	0.4	0.8
United Kingdom	13	13	14	17	0.49	0.49	0.51	0.49	-0.1	0.8	-1.0	0.0
United States	10	10	13	10	0.53	0.54	0.53	0.55	0.4	-0.6	1.2	0.3

〈부표 2〉 국가별 환경지수 수준 및 변화율

Country	순 위				지 수 값				연평균변화율 (%)			
	1995	2000	2005	2009	1995	2000	2005	2009	95-00	00-05	05-09	95-09
Average	0.49	0.52	0.55	0.58	1.3	1.0	1.0	1.1
Australia	20	20	18	17	0.47	0.50	0.54	0.56	1.6	1.3	1.0	1.3
Austria	9	12	14	16	0.56	0.57	0.57	0.58	0.3	-0.1	0.7	0.3
Belgium	17	15	15	15	0.51	0.54	0.57	0.59	1.3	0.8	1.1	1.1
Canada	18	19	21	21	0.49	0.51	0.52	0.54	0.9	0.5	0.7	0.7
Chile	29	30	31	31	0.34	0.36	0.39	0.39	1.1	1.4	0.4	1.0
Czech Republic	25	27	27	28	0.39	0.43	0.46	0.49	2.1	1.6	1.5	1.8
Denmark	2	2	1	2	0.61	0.65	0.70	0.72	1.1	1.7	0.5	1.1
Finland	12	11	7	6	0.54	0.57	0.62	0.66	1.0	1.7	1.8	1.5
France	14	13	13	9	0.53	0.56	0.57	0.63	1.1	0.3	2.2	1.2
Germany	10	9	10	8	0.56	0.58	0.61	0.64	0.9	1.0	1.2	1.0
Greece	22	23	23	22	0.46	0.48	0.52	0.54	1.0	1.4	0.8	1.1
Hungary	26	25	24	25	0.38	0.45	0.49	0.51	3.6	1.9	0.9	2.2
Iceland	16	16	16	18	0.51	0.53	0.55	0.54	0.8	0.6	-0.5	0.4
Ireland	11	7	8	12	0.56	0.60	0.62	0.62	1.5	0.6	0.1	0.8
Italy	13	14	12	14	0.54	0.56	0.59	0.60	0.9	0.9	0.4	0.8
Japan	3	8	6	3	0.60	0.58	0.63	0.67	-0.7	1.5	1.7	0.8
Korea	24	28	26	27	0.39	0.42	0.47	0.50	1.7	2.2	1.6	1.8
Luxembourg	6	3	3	4	0.58	0.64	0.64	0.67	1.9	0.1	1.1	1.0
Mexico	30	29	29	30	0.33	0.41	0.42	0.42	4.0	0.4	0.5	1.7
Netherlands	8	10	11	11	0.57	0.57	0.60	0.62	0.0	0.9	0.9	0.6
New Zealand	15	17	20	23	0.51	0.52	0.54	0.52	0.2	0.6	-0.5	0.1
Norway	1	1	2	1	0.67	0.65	0.69	0.74	-0.6	1.2	1.7	0.7
Poland	27	24	25	24	0.37	0.45	0.49	0.52	4.0	1.4	1.8	2.4
Portugal	23	18	22	20	0.45	0.52	0.52	0.54	3.0	0.1	0.7	1.3
Slovak Republic	28	26	28	26	0.36	0.43	0.46	0.50	3.5	1.4	2.0	2.3
Spain	19	22	17	13	0.48	0.50	0.54	0.61	0.8	1.7	3.2	1.8
Sweden	4	4	4	7	0.58	0.61	0.64	0.66	1.0	0.6	1.0	0.9
Switzerland	5	6	9	10	0.58	0.61	0.61	0.62	0.9	0.2	0.3	0.5
Turkey	31	31	30	29	0.32	0.34	0.41	0.43	1.7	3.5	1.4	2.2
United Kingdom	7	5	5	5	0.58	0.61	0.63	0.67	1.1	0.6	1.4	1.0
United States	21	21	19	19	0.46	0.50	0.54	0.54	1.7	1.3	0.2	1.1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Korea: A Cross-National Indicator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OECD Countries

Myungho Park* · Wankeun Oh** · Yeongseop Rhee*** ·
Sang Buhm Hahn****

Abstract

The study evaluates Korea's current status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with the design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dicator (ESDI). This indicator is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including growth engine, social integr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indicator analysis demonstrate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and the general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OECD countries. Especially, this study reveals that by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Korea is relatively short in the 2nd and 3rd categories. Through a policy simulation analysis, this study also finds that Korea needs a structural reform to upgrade its current status. Therefore, we suggest that for further upgrad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Korea should focus more on social integration aspects.

Key Word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dicator, growth engine, social integration, environment

Received: April 23, 2013. Revised: July 1, 2013. Accepted: Aug. 19, 2013.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130-791, Korea, Phone: +82-2-2173-3150, e-mail: mhpark@hufs.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1, Oedae-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449-791, Korea, Phone: +82-31-330-4247, e-mail: wanoh@hufs.ac.k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Phone: +82-2-880-8511, e-mail: yrshee@snu.ac.k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yonggi University, 71 Chungjeongno 2-ga, Seodaemun-gu, Seoul 120-702, Korea, Phone: +82-2-390-5151, e-mail: sbhahn@kgu.ac.kr